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성료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지난 11월 24일 (금)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럭키 빌 6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식전행사로 진행된 대회 역사 영상물 방영과 길놀이 행사 후 정운순 인천·경기연합회장의 대회선언으로 제51회 대회가 막이 올랐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농업운동 전개”라는 주제로 생산자인 농업인, 소비자인 도시민과 정부, 지자체 등은 국민이 하나 되어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오신 회원, 소비자인 도시민 등 1,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내빈으로 국회와 정부, 농업관련 기관,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 많이 참석하였다. 국회에서는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김춘진 (전북 고창·부안)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및 농업관련기관에서는 이양호 농업정책국장, 농촌진흥청 안진근 농촌지원국장, 최동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경기도 이진찬 국장, 농협중앙회 이재관 부회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영성 상임이사,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교장, 농수산물유통공사 하영제 사장, 한국마사회 강봉구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농업관련단체 및 언론에서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황민영 상임대표,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우현 회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조현선 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재돈 이사장, 농단협 장병수 사무총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그리고 51회 대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정장섭 고문과 강춘성 고문을 비롯한 많은 원로회원

이 참석하여 대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대회 순서는 1부 기념식, 2부 원로회원 사은행사, 선도농가 한마음 마당과 부대 행사로 지역 대표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전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내빈소개에 이어 서울시연합회 이운영 부연합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념식에는 충북연합회 류인석 회원의 “선도농가 강령선서”와 서영욱 부회장의 “대회 약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도시민을 발굴·선정하여 “농업기술상”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어촌공사장, 한국마사회장” 표창장, 우리협회 회장 감사패 및 표창장” 등을 시상하였다.

영광의 수상자 중에서 농업기술상 부문 본상은 농업인의 권익대변을 위한 지도자 활동과 선진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등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경북 상주의 서석환 이사, 특별상은 회원의 권익과 농업기술보급 등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협회 부산·경남 연합회 정운수 사무처장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에는 김포시 임순관 회원 외 19명이 수상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상한 농촌진흥청장 표창에는 강원연합회 박성현 사무처장 외 4명, 농협중앙회장 표창에는 울산연합회 이사덕(창우) 부연합회장 외 4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표창에는 옹진군 홍순일 이사 외 4명, 한국마사회장 표창에는 음성군 윤종욱 지회장 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김상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외 4명이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중국 흑룡강성 유기수도협회 홍상표 회장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

협회장 표창으로 의왕시 조재걸 회원 외 17명이 수상하였다.

이 밖에 제15회 농업인의 날 유공 표창자로 선정된 황금약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범 공주시회장과 오랫동안 향촌조경을 운영하면서 우리 협회 조경수재배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웅 회원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농림식품부장관 표창장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대회장인 윤천영 회장의 대회사와 최인기 농림수산물식품위원장축사, 농림수산물식품부 유정복 장관의 격려사, 농협중앙회장의 축사 등이 있었다.

윤천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3대 혁명을 실천한 회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2011년을 국민농업운동의 활성화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제51회 대회까지 노력해 온 선도농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농업운동이 결실을 거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한발 앞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유정복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연평도 사태, 국회 등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는 제51회 대회의 축하와 함께 농업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농촌을 지키는데 헌신해온 선도농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바이오경제시대”와 아시아 식품시장 15억 명의 거대시장, 중국의 농산물 수입의 증가와 유기농산물의 거래 현황 등을 볼 때 기회만 잘 살리면 “잘 사는 농어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농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과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을 대신하여 이재관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는 제51회 대회의 축하와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상자를 축하하였다. 농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라는 구호아래 선도농가들과 손잡고 잘사는 농촌, 희망농업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농업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다함께 매진하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 하영제 사장 등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어 대회를 축하하여 주었다.

인사말에 이어서 이번 대회의 주제인 우리 협회의 “국민농업운동”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박종포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국민농업의 설명과 함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우리협회가 추진하는 국민농업과 국민농업 추진 경과, 앞으로 국민농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선도농가의 건의문을 원주시지회 이준희 사무국장, 선도농가 결의문을 인천·경기연합회 박용일 사무처장이 낭독하고 참석자들의 박수로써 채택하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폭탄공격에 대한 긴급안보촉구 결의문을 강원도 연합회 박성현 사무처장이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참석한 내빈 등이 제51주년 기념 떡 자르기를 한 후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와 함께 연예 행사를 시작하였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 2부 행사는 원로회원들에 대한 사은 행사, 선도농가 한마음 마당,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원로회원 사은 행사는 1985년 발행된 동심록에 등재된 통일회원 중에서 각 시·도 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강신남 등 104명의 원로회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증정하면서 전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선도농가 한마음 마당과 행운상 추첨 등이 있었는데 한마음 마당에서는 외부에서 초청한 고전·현대 무용단, 민요가수, 사물놀이패들의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펼쳐졌으며,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서울시연합회와 울산시연합회를 비롯한 각 지역 대표

등이 나와 노래솜씨 등을 뽑내며 참가자들과 함께 여흥을 즐겼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대상(김치냉장고)에 경남 함양의 조영자 회원과 금상(세탁기)에 서울 도봉구의 남정애 회원이 당첨된 것을 비롯하여 협회와 회원들이 생산한 각종 우수한 농산품과 전자제품, 분무기 등 200여점의 행운상품을 당첨자들에게 골고루 전달하였다.

아침부터 오후 까지 부대행사로 진행된 “지역 대표 특산물 전시 및 홍보전”은 각 시·도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회원이 생산한 우수한 명품 농산물을 전시·홍보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우리 협회와 경기도, 과천시, 우리협회 인천·경기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후원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산림조합중앙회, 건국대학교, 상

허문화재단, 농민신문 등 농수축산전문지 등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협회 제주도연합회 임혁재 회장이 품질이 우수한 제주 감귤 80상자를 지원하여 참석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또한 국회의원, 행정, 농업관련단체, 농업관련 기관 등 많은 곳에서 화환과 축전을 보내 축하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농업관련기관, 단체, 언론, 업체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전국방방곡곡에서 자비를 들여 차를 대절하거나 승용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열의와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도·농교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연합회 회원 등 도시민들의 열의, 임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연합회장 및 사무처장, 지회장 등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쳐진 결과가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한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㉞



▲ 제51회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 순국선열 및 연평전사자에 대한 묵념



▲ 우리의 목표(강령) 선서



▲ 윤천영 회장 대회사 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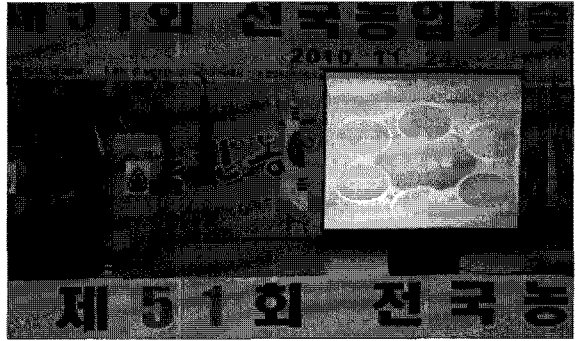
▲ 농업기술상 전달



▲ 원로회원님께 감사장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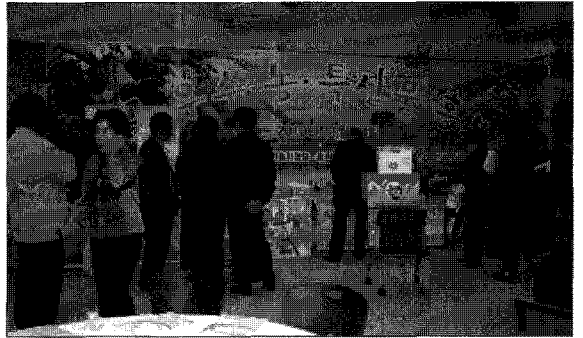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전달



▲ 박종포 총장의 국민농업운동 추진 방향 발표



▲ 기념 떡 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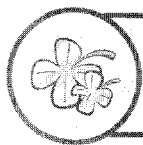
▲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전



▲ 행운상 추첨



▲ 시·도 장기자랑



대회사

오늘은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51번째 생일을 맞는 소중한 잔치 날입니다.

1960년 10월, 부산에서 제1회 대회 후 50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입니다.

오늘 국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주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인기의원님을 비롯한 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관기관장님들과 농민단체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10만여 선도농가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50년 전 바로 이 대회를 준비 주관하시고 오늘 오십한번째 대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정장섭 고문님을 비롯하여 고중덕, 김정호, 이계조, 박덕준, 강원호, 박용국, 강춘성 원로회원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하여 자리를 같이하신 선도농가 회원 동지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60년 전국의 선도농가, 농업기술자, 농촌지도자들이 자주·자립을 표방하며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영농을 통한 증산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앞장서자며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3대 혁명정신의 기치를 내걸고 창조적 창의성과 개척자적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일궈내신 주역들이십니다.

하지만, 요즘 추수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은 떨어지고 추곡수매가마저 낮아서 그렇습니다.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수매가는 거꾸로 내려가니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어 1990년대에는 1인당 연간 120kg을 소비하였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약 70kg 정도로 무려 40%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의 감소보다 더 빠른 소비량 감소와 WTO 쌀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가로 창고에 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쌀 소비증대와 생산 감소 대책을 위한 휴경보상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식인 쌀을 비롯해 농산물의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증대 정책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만 될 것 입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쌀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동포들의 허기를 달래주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곳에 무작정 보내는 것이 능사일까요? 저들이 진정으로 인도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제는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저들에게 무엇을 주자는 것인지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선행된 후 지원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약 10억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쌀 재고가 문제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2주전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G20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만큼 높아졌다

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 지구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미국과 FTA협상이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타산업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70여 국가와 FTA협상이 끝났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국을 포함,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의 FTA는 우리 농업부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부문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FTA협상을 농업인들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많은 농업부문에 대하여 정부는 FTA 피해보상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한 후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레야만이 우리의 농업인의 주름살이 펴지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식량전쟁이라고 할 만큼 식량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수출을 금지하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자존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히 높여 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즈네츠 교수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 삶의 근간이며, 국가자존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큰 농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작년 제50회 전국대회에서 지난 50년을 발판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비전선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새로운 50년을 향해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을 국민농업운동의 활성화 원년의 해로 하고자 합니다.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은 백악관에 “부역정원”을 조성하여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내에도 “국민정원”을 설치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전체가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농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농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문제, 그리고 금년 배추파동 등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농산물은 국민의 필수 소비재로서 생산자이 농업인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도시민들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그 중요성을 새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생산자나 소비자도 단순한 먹을거리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융·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모든 국민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원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선도농가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10만여 선도농가는 50년 전 창립정신으로 돌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농업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윤 천 영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건의문

전국의 10만 선도농가들로 구성된 우리협회는 개방에 대한 압력과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제자리걸음인 농산물 가격 등 대내외적인 영농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농촌경제와 농업기반의 붕괴위험을 막아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정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인 타 산업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을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산업으로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산물생산과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당당한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 국가 성장이란 미명하에 다자간, 양자 간의 국가협약을 통한 농산물개방으로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업인들은 농업현장을 떠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정확히 예측하여 보호하

고 보전할 수 있는 선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 강력한 개혁을 통하여, 농민조합원의 출자로 이루어진 농업협동조합을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 되돌려야 하며, 지역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농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영농기피·농업계 학교의 쇠퇴화 등 농업인력 부족과 농업교육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령농가의 경영이양이 후계자 양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농업인사관학교 식 현장 교육기능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 농업을 국민식량주권과 국가 자존산업으로, 농촌을 국민활력 재충전의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농민을 농촌전문문화의 수호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민농업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1월 24일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자 일동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결의문

지금 우리농업은 농산업 지배를 통해 세계의 식량경제를 지배하려는 다국적 농기업들과 농업 강대국들의 WTO, FTA 등 국가 간 협약을 통한 농업 개방 압력으로 농업생산의 국제적, 지역적 분업화 구조재편과 유통

구조 재편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타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성장의 기회임을 내세워 농업부문의 위기를 단순한 농업, 농촌, 농민의 피해로만 해석하여

일시적인 보상과 달래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산업이 없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농업이 죽으면 산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인간의 존립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한국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농업생산의 근대화를 주도한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0만여 회원 일동은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 한국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단순한 농업인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식량주권과 국가자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전통 농산물의 종자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둘째 :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시장논리가 아닌 특수한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셋째 : 안전하고 지속적인 먹을거리의 생산을 위해 선도농가로서 관행농법을 지양하고 유기농 및 친환경농법을 선도하며 선진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 한다.

넷째 : 우수한 농업후계자 확보와 양성을 위해 실습 훈련기관인 농업인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현장교육 등 후계 농업인 양성에 주력할 것을 결의 한다.

다섯째 : 우리 선도농가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이름으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1월 24일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긴급안보촉구 결의문

지난 23일 북한 공산집단의 서해 연평도 무차별 포격 만행에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비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선량한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반민족적, 반인류적 폭거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빈번한 도발행위에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철저히 확실한 응징과 철벽방위 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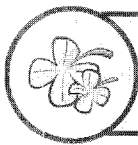
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안보

면에서 좌·우 이념의 어떠한 갈등도 배격하고 민족 총화태세를 갖출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한다.

셋 : 우리 농업인들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국가보위의 초석이 되는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지키기에 의연히 떨쳐나설 것을 굳게 결의하고 맹세한다.

2010년 11월 24일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자 일동



2010년도 제2차(11기) 말(馬)산업 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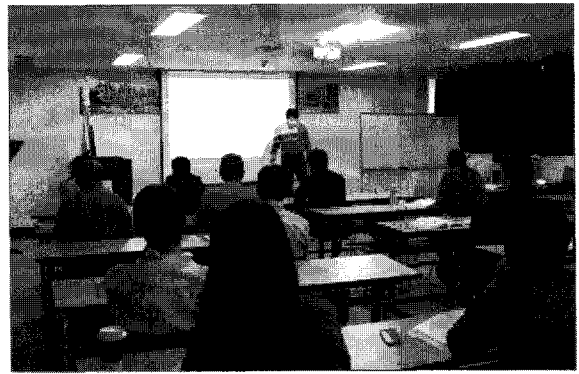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으로 “말(馬)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난 6월 21일(월)부터 7월 21일(수)까지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어 2차 교육을 지난 10월 13일(수)부터 11월 5일(금)까지 매주 4주간 10박 14일의 일정으로 농업기술진흥관, 유일레저 및 현장에서 말 산업 관련 종사자 등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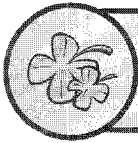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마필산업 정책에서부터, 말 관리, 승마기술, 농촌형 승마장 개설 절차까지 등의 전반적인 교육을 통하여 말을 활용한 각종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이론과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은 말 산업 및 승마장 육성대책방향, 승마장 개발 방향, 말의 품종, 말급관리, 마구장비 사용요령, 질병관리, 사양관리, 번식 및 혈통관리, 재활승마 등의 이론교육과 순치, 조마삭 훈련, 승마훈련 등의 실습교육, 마사회 및 승마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교육 수료 후에도 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인터넷 카페 개설을 통한 교육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㉟





2010년도 제105차 이사회 개최

지난 10월 20일(수) 13:05부터 진흥관 2층 중강 의실에서 2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총장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협회 제105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이후 추진된 주요업무보고로 농업기술진흥관 관리현황, 강일동 농장 종합토지세 면세 추진결과, 2010년도 시·도연합회장 및 사무처장 회의개최 결과(2010. 9. 7),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달 보고와 조직 활동상황 보고가 있고 이어서 교육·연수팀의 2010년도 중국농업연수 실시결과, 2010년도 귀농·귀촌교육 실시 결과 등의 업무추진보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심의사항 **제1호안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에 관한사항이 부의가 되어 전반적인 대회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원로회원 사은행사는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대상은 역시 1985년 통일동심록에 등재된 통일회원으로 하며 인원은 100여명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홍보전도 시·도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사항 **제2호안 본회 임원선거에 관한사항**은 대의원 임기적용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의 관례나 새로운 조직 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단계이니 긍정적인 해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2010년도 중앙대의원임시총회 대의원구성기준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며 사무처는 바로 동대의원 구성기준을 지침으로 시·도연합회에 내려 보내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제3호안 임원선거규칙 제정(안)**은 그동안 관행으로 처리되어 온 선거업무를 명문화 한 것이니 문제점만 집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아 토론이 종결되고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다. 그리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부의가 된 ① 농업기술진흥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판제작 및 설치에 관한사항은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등이 보고가 되고 논의를 거친바, 기존 명단에 오류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대상은 1993년 2월말 이전에 가입한 통일회원으로 진흥관 건립기금을 납부한 개인에 한하고 기업, 단체, 기관 등은 일괄하여 빼기로 하였으며 지역의 구분은 현재 분류된 지역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 2011년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② 강일동 농장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현재운영상황과 농장여건 등을 덧붙이며 앞으로의 농장운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로 보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따라서 서울시와의 친환경농장 가꾸기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집행부는 농장을 더욱 좋은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정부나 관계기관에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상 토의사항이 종료되고 15:50분경 회의를 마쳤다. ㉞





2010년도 10월 회장단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19일 오후 8시 10분부터 우리협회 사랑방에서 윤천영 회장, 서영욱, 김완식, 신흥습 부회장이 참석을 하고 사무총장, 조직·관리팀장, 교육·연수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장단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가 있는 후 협의 사항으로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다. 먼저 회원들에 대한 수상확대, 시·도연합회별 회원 자리배치와 내빈, 고문 및 지도위원, 원로회원 등의 자리를 명확히 구분 착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에 대한 협의가 있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홍보전을 위해서는 대회예산을 책정하는 것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다음날 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임원선거 규칙을 조항별로 점검,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기사사

향으로 농업기술진흥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판제작 및 설치에 관한사항과 강일동농장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으로 23:50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진흥관 3층 숙소에서 회장단이 함께 지냈다. ㉞



2010년도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가 주관하여 지난 11월 12일(금)에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농업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농업인,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농업의 전개를 위한 활성화 방안과 농촌 어메니티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 정부와 농업인 단체, 소비자 구성원 간의 정책 동반자로서의 협치와 원활한 소통 방안을 논의하고자 “1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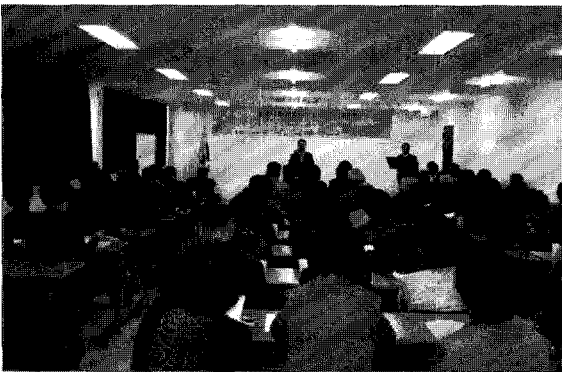
속가능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길은 무엇인가”, “2부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우리협회 윤천영 회장의 인사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우현 회장의 격려사 등 개회식에 이어 각 주제별 발제강연과 패넬토론 및 청중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부 내용으로는 정재돈 이사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좌장으로 정기환 사무총장(국민농업포럼)의 “국민과 함께, 국민의 주체가 되는 국민농업 실현방안”, 이재욱 사무총장(생협전국연합회)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의 발제강연과 정명채 회장(한국농어촌산업학회), 남정에 상임이사(미래가족문화연합), 송정섭 팀장(농촌진흥청 도시농업팀), 최동주 팀장(한국농어촌공사 산업지원팀)의 토론자와 청중 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는 정명채 회장(한국농어촌산업학회)을 좌장으로 황만길 원장(전북지역농업연구원)의 “지역농업과

농업회의소”,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제언”의 발제강연과 김수석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병수 사무총장(농민단체협의회), 최완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이석래 군수(강원도 평창군),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토론자와 청중 간의 토론으로 실시되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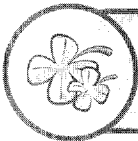
2010년도 시·도연합회 사무처장 회의개최

우리협회 시·도연합회사무처장 회의가 진흥관 3층 사랑방에서 사무처장 5명 및 본회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조직·관리팀장, 교육·연수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11월 26일(금) 개최가 되었다.

12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13:30분에 회의를 시작, 우선 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0일 제105차 이사회에서 의결, 시행이 되는 임원선거규칙 제정보고가 있고, 이어서 협의사항으로 본회 2010년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여 위원장 1명(대전·충남도연합회 차경환 사무처장), 부위원장 1명(서울시연합회 남정에 사무처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협의사항 두 번째인 본회 임원선거에 관한사항에 들어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임원선거관리업무 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주요내용 중, 임원선거공고는 2010년 12월 1일

자로 하고, 제106차 이사회는 12월 9일(목), 2010년 도중앙대의원임시총회일은 2010년 12월 22일(수)로 정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오후 3시 10분경 회의를 마쳤다. ㉟





하이서울친환경농장(강일동 농장) 소식

우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이서울 친환경농장(강일동 농장)은 김장채소 수확이 끝남에 따라 주변 정리 등을 완료하고 2010년 농장 운영을 마무리 짓게 된다.

강일동 농장은 친환경농장 확산으로 한강상수원의 수질오염원을 감축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계기 마련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을 친환경농장 체험과 연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서울시의 하이서울친환경농장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여 서울 및 인근의 도시민들에게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다가오는 2011년에는 새로운 농장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농장 운영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



연합회 및 지회동정

■ 울산광역시연합회 현장 교육 등 실시

우리협회 울산시연합회(회장 송시준)에서는 지난 10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송시준 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전남 나주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견학과 회원의 새로운 소득작물개발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선진 농업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 서울시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서울시연합회(회장 홍윤표)에서는 지난 10월 27일(수),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홍윤표 연합회장을 비롯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입회원 소개와 성공적인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위한 협조 사항, 중앙회 정

관 및 조직 관리규정 설명, 임원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11월 12일(금)에 다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리고 제3차 회무위원회를 지난 11월 12일(금) 오전 11시부터 우리협회 진흥관 2층 중강의실에서 19명의 회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회무보고에 이어 협의사항으로 연합회 임원개선사항에 대한 추인과 지역 대표 회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를 하고 제 51회 전국대회 시 원로회원 추천건도 함께 논의를 한 후 12시 20분경 회의를 마치고 오후 행사인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다.

■ 전북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전북연합회(회장 강경래)에서는 지난 10월 27일(수), 고궁 1층 별실(전주 덕진동)에서 우리협회 서영욱 부회장과 강경래 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강경래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중앙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서영욱 부회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안전 논의에 들어갔다. 안전으로 상정된 연합회 임원선출의 건은 연합회장 후보로 강경래(정읍), 진창근(전주), 박종천(완주) 회원 3명이 추천되었으나 박종천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2명의 후보 중에서 투표로 강경래 후보를 연합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부연합회장은 전원 유임되었으며, 감사는 류순열 전주지회장과 김석중 익산지회장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현재의 노기욱 사무처장이 그대로 맡기로 하였다. 이 밖에 14개 시·군의 지역대표회원도 선임하였다.

■ 대구·경북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대구·경북연합회(회장 엄군섭)에서는 지난 11월 3일(수),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우리협회 윤천영 회장과 엄군섭 연합회장을 비롯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엄군섭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우리 협회 윤천영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연합회 활성화 방안,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임원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 날 임원 개선에서는 엄군섭 연합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신동하 이사(상주)가 새 연

합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 되었다. 이영일(대구)·박순길(청송) 부연합회장이 유임되고 정천수 지회장(영덕)과 최영호 지회장(영천)이 새로 부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고생한 황봉규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락범 회원(상주)이 새로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4개 시·군 지역대표회원도 선임하여 추천하였다.

■ 부산·경남연합회 제4차 회무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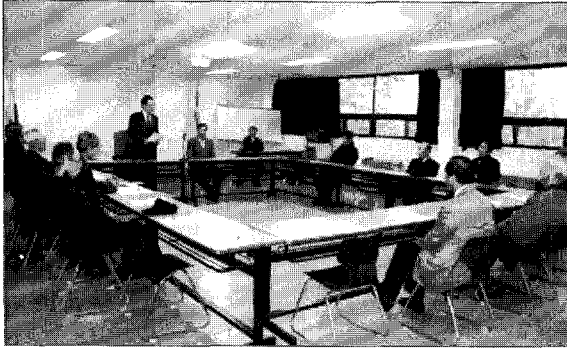
우리협회 부산·경남연합회(회장 이갑용)에서는 지난 11월 6일(토), 진주영남농약에서 신흥습 부회장과 이갑용 연합회장을 비롯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갑용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우리 협회 신흥습 부회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연합회 임원 개선,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원로회원 추천, 2010년 임시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회원 추천 건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이갑용 연합회장과 김형렬 부연합회장은 유임되었다. 김윤생 지회장(사천), 최재수 지회장(산청), 조영자 회원(여, 함양), 이복희 회원(여, 양산)이 부연합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안수상 지회장(거제), 이영호 지회장(부산 사하)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정윤수 현 사무처장이 그대로 맡기로 하였다.

■ 인천·경기도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인천·경기도연합회(회장 정운순)에서는



지난 11월 8일(월),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운순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우리 협회 윤천영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연합회 임원 개선,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와 원로회원 추천, 2010년 임시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회원 추천 건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정운순 연합회장과 이준영·장세균 부연합회장은 유임되었다. 홍순일 이사(웅진), 김보연 지회장(고양 일산), 윤여경 회원(여, 화성)이 부연합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강신원 지회장(연천), 류홍열 지회장(이천)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박용일 화성지회장이 선임되었고, 29개 시·군 지역의 지역대표회원을 선임하였다.

■ 대전·충남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대전·충남연합회(회장 이상운)에서는 지난 11월 12일(금), 청양문화원 소회의실에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연합회 임원 개선, 중앙대의원 확정,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원로회원 추천과 대회 참가 및 농산물 홍보전 출품건 등을 논의하였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이상운 연합회장·지충원 부연합회장이 유임되었으며, 이기범 지회장(공주), 안상열 지회장(서산), 송원빈 회원(논산), 최미자씨(홍성)를 부연합회장으로 새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감사는 윤정노 지회장(청양), 한창상 지회장(보령)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14개 시·군 지역대표회원을 선임하여 추천하였다.

■ 광주·전남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장창환)에서는 지난 11월 16일(화), 꽃돈식당(광주)에서 서영욱 부회장과 장창환 연합회장을 비롯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신임 지역대표회원 인준, 연합회 임원 선출,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원로회원 추천과 대회 참석 및 농산물 홍보전 출품품목 결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장창환 연합회장과 최운석(강진)·윤성근(화순)·문종선(장성)부연합회장은 유임되고, 나영진 회원(무안)이 새로 부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감사는 박규상 지회장(영암)과 이갑진 회원(광주)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 이갑진 회원, 광주 남구 김용일 회원, 곡성군 박종오 회원, 진도군 최기송 회원이 지역 대표회원으로 새로 선임되었다.

■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충청북도대회 개최

우리협회 충북연합회(회장 이상수)에서는 지난 11월 17일(수)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충북 청원에 위치한 상수허브랜드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충청북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농업은 이 나라의 바탕이요, 농민은 이 민족의 뿌리,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업·농촌, 우리의 혁명적 창조로 새롭게 불을 지피자”라는 주제로 회원과 농업관련 관계자 등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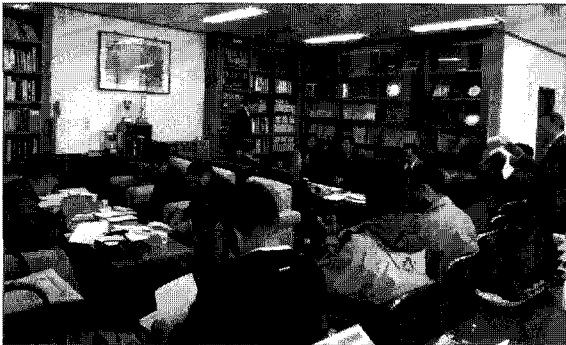
1부 기념식, 2부 농업기술성공사례발표, 3부 한마음 큰잔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상수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중심에 우리 협회회원이 있으며, 최고의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우리 협회 윤천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농

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3대 혁명을 실천한 회원들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자부하고, 이번 대회가 충북연합회 회원들의 자축행사로 끝나지 말고 선도농가로서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의미를 새기는 자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대회의 수상은 2010년 충북농업기술상 본상에 조순호 단양군지회장, 특별상에는 윤영길 회원(충주), 양재호 회원(진천)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지사 표창에는 박순이 회원(옥천), 김종환 회원(음성), 류인석 회원(청원)이 수상하였다.

■ 강원도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우리협회 강원도연합회(회장 김완식)에서는 지난 11월 19일(금), 속초시의회 3층 의정협의회의실에서 우리협회 윤천영 회장과 김완식 연합회장을 비롯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합회장의 인사말과 윤천영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연합회 및 지역조직의 활성화 방안과 임원 구성 건, 지역대표 추천 건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김완식 연합회장과 곽대신·김상우 부연합회장은 유임되고, 김상동 회원(철원)·신승득 이사(영월)·도명숙 회원(여, 고성)이 부연합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었다. 감사는 이세근(평창), 최창수 회원(철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사무처장으로는 박성현 고성군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19명의 시·군 지역대표회원도 선임되었다.

■ 장성군지회 총회



장성군지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전라남도 백양사 위락단지 내 동원정에서 총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도연합회장의 중앙회 활동사항과 우리협회의 주요 추진사업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임원선출 및 젊은 회원 확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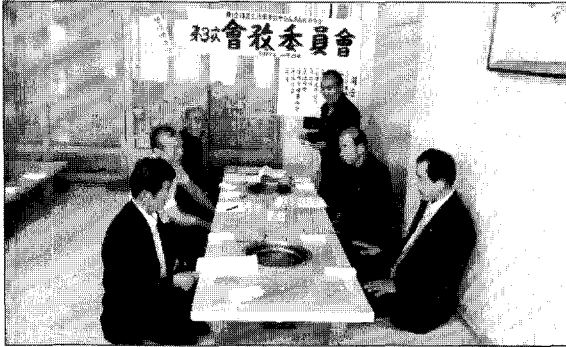
■ 무안군지회 총회



우리협회 무안군지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무안 매일회관에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진주시지회 운영위원회와 제5차 임시총회 개최

진주시지회는 10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진주영남농약에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포상자 추천 및 지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제5차 임시총회를 11월 15일 오후 6시 송화식당에서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 원로 유공회원 추천, 해운상품 출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보성군지회 총회

보성군지회는 10월 14일 보성읍 부평음식관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회 임원선출 및 지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고성군지회 정기모임



고성군지회에서는 10월 19일 오전 8시부터 장신리 소동령 등산로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야생화모임 및 소리 식물원의 후원으로 소동령 등산(숲 해설 및 트래킹교육)과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 옥천군지회 총회

옥천군지회는 10월 22일 먹자구이 음식점에서 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석 및 충북도연합회 지방대회를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영암군지회 총회

우리협회 영암군지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 영암읍 궁전예식장에서 지회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회 활성화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였다.

■ 원주시지회 총회



원주시지회는 11월 2일 오전10시 원주원예농협 및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후원으로 원주원예농협 공판장 2층 회의실에서 지회 총회를 개최하여 본회 정관 및 조직관리규정 개정 내용설명, 지회 활성화방안,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계획을 논의하고, 또한 지회 임원도 새롭게 구성하였다.

■ 영천시지회 단합대회 및 총회개최

우리협회 영천시지회는 11월 3일 14시부터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단합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지회 총회는 대구·경북도연합회 회무위원회를 마치고 회의를 가졌다.

■ 완도군지회 총회

완도군지회는 11월 6일 10시부터 지회 회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산생약초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회원정비 및 지회 임원개선을 위한 지회총회를 개최하였다.



■ 전북 완주군지회 농민대학 개최

지난 11월 9일(화) 아침 9:30분부터 13시까지 완주군 이서면 면사무소에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인한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주제의 농민대학을 개최하였다.

완주군의 회원님들 약 50여분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셨으며,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농촌진흥청 이전 추진단장인 이종기 단장님의

완주군으로 농촌진흥청이 이전을 하게 됨으로서 지역농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을 하였고, 이에 윤천영 회장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기술의 중요성,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김복기 소장의 완주군 농업발전 방향 및 과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김봉환 박사의 식물생리와 시설원에 최신재배기술, 전북개발공사혁신고시추진단 정재환 단장의 혁신도시의 지역파급효과와 파생사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 나주시지회 총회 개최

나주시지회는 11월 15일 나주시 동강면 수미회관에서 지회 회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임원선출 및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석 건에 관한 논의와 지회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토의가 되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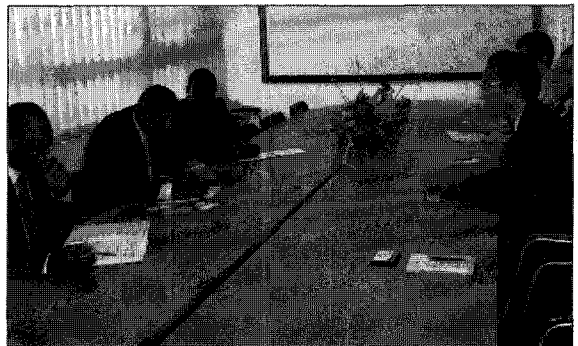
기타 동정

■ 윤천영 회장 모잠비크 조사단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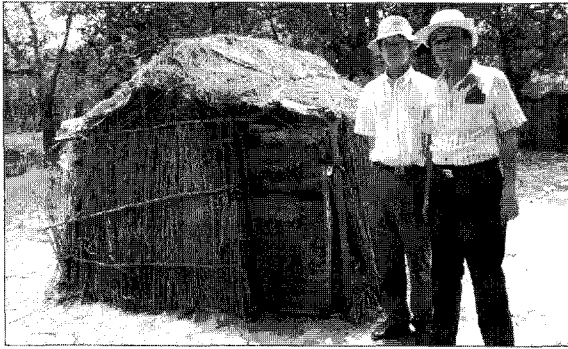
협회 윤천영 회장은 지난 10월 22일(금)~30일(토)까지 8일간에 걸쳐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우리 정부의 기획사업으로 빈곤국인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보급기술체계」 구축사업(2009~2011년)의 후속사업으로 영농기술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위한 현지전문조사단으로 참여하여 다녀왔다.

조사목적은 센터건립을 위한 건축분야, 센터 운영프로그램(영농기술훈련, 지도자교육 등)의 운영을 위한 현지 농업현황 및 기술수준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및 해외 자원확보 정책을 위한 아프리카 중점국가 진출로 양

국 간 협력관계 강화 및 호의적인 분위기의 조성에 있다.



▲ 모잠비크 농업부 차관, 국장과 협의



▲ 모잠비크 농가 앞에서

■ 제15회 농업인의 날 유공표창 시상



제15회 농업인의 날 농정유공 표창자로 이기범 지회장(충남 공주)과 이상용 회원(경기 화성)이 각 국무총리표창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기범 지회장은 작두콩 등 국내 최초로 다수의 약초재배에 성공한 약초재배의 선구자로 국내 토종 약초재배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고 적극적인 농정활동 등의 공로로 수상하였으며, 이상용 회원은 조경수 재배 기술 전파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이윤구 의정부·양주지회장 전남 해남군에서 영농강의 실시

이윤구 지회장은 2010년 9월 30일 회원 연합회의 초청으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해남군 회원면 회원농업기술자연합회(회장 김태욱) 사무실에서 유씨엠티농법에 의한 수도작, 월동배추,



양파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이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참가농민들은 신제품 마그황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월동배추와 양파에 사용을 다짐했으며, 교육을 마치고 마그황탄을 사용한 김태욱 회장 눈을 돌아보며 마그황탄에 뛰어난 효과를 확인했다.

■ 우리협회 안동원 회원 산문집 '뒷모습을 아름답게' 발간



우리협회 안동원 전감사이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뜻에서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엮은 '뒷모습을 아름답게'라는 산문집을 출하였다.

■ 농촌진흥청 황금물결과 함께하는 제3회 정읍등근마 축제

정읍 문응주 사무장이 운영하는 정읍농원에서 11월 6일 11~4시까지 정읍지부 회원들과 이웃 및 전국에서 300여분이 오셔서 정읍 등근마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하고, 등근마 수확과 마밥, 마튀김, 마쥬스 등 마을 이용한 요리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㉞

2010년 10월

- 4일 전남 무안지회 정기총회
- 6일 전국농촌지도자대회(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 내 특설무대)
- 11일 2010 도시농업활성화 심포지엄(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12일 농협·법무부 공동 가을추수 지원행사(경기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
- 13일 농축수산단체대표자간담회(국회의원회관)
- 13~15일 2010 말 산업 전문가양성과정(2차) - 개강식
- 14일 재활승마 한마당(서울경마공원)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대상 시상식(마사회 컨벤션홀)
- 18일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경과 설명회(농협중앙회 2층)
- 19일 회장단 장관과의 면담
- 19~22일 2010 말 산업 전문가양성과정(2차) - 이론 및 실습
- 20일 제105차 이사회
제19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aT센터 5층 대회의실)
- 22~30일 모잠비크 기획사업 출장
- 26~29일 2010 말 산업 전문가양성과정(2차) - 이론 및 실습
- 27일 서울연합회 회무위원회(농업기술진흥관)

2010년 11월

- 1일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실)
- 2일 제6회 우수품종상 종합심사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안양 국립종자원 3층)
- 3일 대구·경북연합회 회무위원회
- 3~5일 2010 말 산업 전문가양성과정(2차) - 견학 및 수료식
- 4일 제12회 한국4-H 대상시상 및 4-H발전 기금조성 대회
- 5일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회관)
- 8일 인천·경기도연합회 회무위원회(농업기술진흥관)
- 9일 전북 완주지회 지방농민대학(이서면사무소)
- 10일 민주당 농민단체 초청 토론회(국회 귀빈식당)
-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농촌진흥청)
- 12일 서울연합회회무위원회(농업기술진흥관)
농업인의 날 심포지엄(농업기술진흥관)
- 17일 2010년 충청북도농업기술자대회(청원군 상수허브랜드)
- 26일 각시도연합회 사무처장 회의(농기협 사랑방)